

## 대만 출장 결과보고

### 1. 출장개요

- 출장목적: 대만중화경제연구소 주최“무역자유화와 농정개혁” 세미나참석
  - 세미나: 11월 5일~6일, field trip : 7일
- 출장자: 국제농업연구센터 송주호
- 출장기간 및 출장지 : 2008년 11월 4(화) ~ 8(토), 대만 타이페이시
- 출장경비: 대만에서 전액 부담 (항공료 + 숙식비 등)

### 2. 상세 결과

- 주제별 발표자:
  - OECD Mr. Wayne Jones (농업전망, BIO-Fuel Policy)
  - 일본 규슈대 Dr. Kunio Tsubota (식량안보)
  - 대만 농업위원회 Susan Chang 국제농업국장(대만 농정개혁)
  - 대만 중화연구소 Dr. Fang (미국, EU 일본 농정의 시사점)
  - 대만 academia Sinica Dr. Chang(대만의 무역자유화 영향-쌀)
  - 스위스 농무성 Mr. Riesen (스위스의 농정 개혁)
  - 일본 농업경제연구소장 Mr. Noboru Saito (일본의 농정개혁)
  -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(한국의 농정개혁)
- 주요 내용
  - 향후 국제 곡물가격은 2008년 이후 하락할 것이나 과거 10년 평균보다는 30%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(OECD 전망)
  - 곡물가격 상승분의 30%는 바이오 연료정책 때문에 곡물일부가 식량이 아닌 연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, 향후 바이오연료 정책은 브라질의 바이오에탄올 이외에는 경제성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.(OECD)
  - 자급율의 경우 영양섭취율로 볼 때 한국은 47%, 일본 40%, 대만 31%로 한국이 3국 가운데에는 비교적 높음. 곡물 자급율도 일본 28%, 한국 28%, 대만은 23%임. 동아시아 식량안보 동맹(East Asia Food Security Alliance) 가 필요함. (Tsubota교수)

- 대만은 1년에 2번 쌀 경작을 하고 있으며 2002년 WTO에 가입한 직후 쌀을 관세화 하였음, 대만은 쌀에 대해 약 15%정도의 휴경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 얻기로 함, 대만의 관세는 농산물 관세는 12.6%이며, 사과, 설탕재배는 거의 자취를 감춤. (Susan Chang 국장)
-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, 농업은 GNP의 1%를 차지함. 2009년까지 낙농쿼터를 철폐하기 위해 현재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
- 일본은 규모화된 전업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지원을 확대하고 있음

### 3. 관찰결과

- 2007년 대만 농업의 GNP 비중은 1.45%, 농가인구 비중은 5.4%에 불과하여 우리나라보다도 농업이 약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,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보임.
- 이번 세미나는 대만 농업위원회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으로 각국의 고위 관료의 참석을 요청한 바 있으며, 담당 국장은 2일간 계속 자리를 지키며 토론을 주도함.
- 이 세미나에 대한 대만의 관심은 지대하여 첫날은 경제부 차관이 만찬을 주최하였으며, 둘째날에는 농업위원회 장관과 차관, 그리고 외교부와 경제부의 관리들이 참석하는 등 이번 회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임.
- 한국, 일본, 대만 동아시아 3국의 소규모 농가의 중요성, 식량안보의 중요성 특히, 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공통적으로 매우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, 향후 쌀 정책과 관련된 3개국의 실무자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함.

별첨 : 발표 자료집 1 부 끝.